

일본의 의원제도 (중의원과 참의원)

일본 의회는 양원제로 참의원과 중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. 현행 선거제도는 참의원 선거는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, 중의원 선거는 소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.

1. 일본의 중의원

□ 선출 과정

- 중의원 의원선거는 소선거구비례대표제를 실시
 - * 1993년 선거까지는 중선거구제로 실시되었음
 - 소선거구비례대표제란 선거인이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각각에 1표씩 투표하는 제도(일명 혼합형 비례대표선출 또는 병립형 비례대표)
 - * 소선거구에서 300명, 비례대표에서 180명, 합계 480명을 선출, 피선거인은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모두 입후보할 수 있음(중복입후보제도)
 - 1) 소선거구 당선자
 - 2) 비례대표 출마 당선자
 - 3)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동시 출마하여 소선거구에서 낙선하고 비례대표에 당선된 당선자(패자부활전)
- 일본의 비례대표는 출마 후보자의 득표수로 당선자를 결정, 즉 전국 후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출마 후보자라도 해당 광역 선거구(11개)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
 - 따라서 한 광역 선거구에서 10명의 비례대표를 선출한다고 가정하면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가 비례대표에서 10위 이내에 진입하게 되면 당선하는 경우도 발생

- * 한국은 정당명부식선거를 채택하여 전국 비례대표 후보를 중앙당에서 순번별로 등록하여 전국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

□ 중의원의 우월성

- 중의원에서 가결하고 참의원이 부결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 의원의 2/3 이상의 가결로 법률안 통과
 -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않을 때 혹은 참의원이 의결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이 우선
- * 단, 헌법 개정 우월권은 없음
- 총리 지명, 예산 의결, 법안 심의, 조약 승인에 대해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, 양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혹은 참의원이 중의원의 의결에서 일정기간 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 의결로 함
 -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되고 심의
- 내각불신임결의는 중의원만이 할 수 있음
 - * 내각불신임결의안 가결은 내각의 총사퇴 혹은 중의원의 해산을 의미

□ 내각과의 관계

- 내각은 중의원을 해산시킬 수 있음. 중의원에서 내각불신임결 의안을 가결할 경우,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은 한 내각은 사퇴해야 함

□ 원내 회파 현황

- 의원은 대부분 원내에서 ‘회파(會派)’를 결성하여 행동함
 - 원내 회파란 2명 이상의 원 소속 의원으로 결성하는 단체, 정당과 거의 중복되지만 두개 이상의 정당으로 한 회파를 결성하거나 무소속의원이 원내 회파에 소속할 경우도 있음
- * 그 원의 각 위원회 위원 수나 발언, 질문 시간 배분 등은 정당이 아닌 회파의 소속의원 수에 따라 좌우됨

* 2009년 9월 현재 회파별 의원 수 (합계: 480)

중의원 회파명	의원수(명)
민주당/무소속클럽	311
자유민주당	118
코메이(公明)당	21
일본공상당	9
사회민주당/시민연합	7
여러분의 당	5
국민신당	3
국익과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모임	3
무소속(의장, 부의장 포함)	3

2. 일본의 참의원

□ 설립 과정

- 1946년에 제정된 일본국헌법에서 입법기관으로 국회를 설치,
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설립
- 의원 임기는 6년, 중의원의원 임기 4년

□ 선출 과정

- 참의원의원은 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선출, 비례대표 의원은
도도부현(都·道·府·縣)의 전체구역을 통하여 당선자를 선출
- 참의원은 중의원의 총선발식이 아닌 통상선거로 3년마다 의원
절반(약120명)을 교체

□ 원내 회파 현황

- 참의원 회파 의원수는 중의원의 1/2인 약 240명

* 2009년 9월 현재 회파별 의원 수 (합계: 240)

참의원 회파명	의원수(명)
민주당(108)/신녹풍회(新緑風會)(4)/국민신(5)/일본(1)	118
자유민주당(81)/개혁클럽(4)	85
코메이(公明)당	21
일본공상당	7
사회민주당/호헌(護憲)연합	5
각파에 속하지 않은 의원(의장, 부의장 포함)	4
결원	2

3. 중의원과 참의원의 차이

□ 선출 방법

- 중의원의원 480인(300인은 소선거구 선출의원, 180인은 비례대표 선출의원), 참의원의원 242인(146인은 비례대표선출의원, 96인은 선거구선출의원)

□ 임기

- 중의원의 임기(4년)는 참의원 임기(6년)보다 짧고 중의원은 임기 도중의 해산이 있기 때문에 민의를 더 충실히 반영
 - * 참의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짐

□ 해산

- 중의원은 해산되는 것과 달리 참의원은 임기 도중의 해산 없음
 - 참의원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선거 실시, 중의원은 해산할 때마다 선거 실시
 - * 2차대전 뒤 일본에서는 1946년 첫 선거가 실시된 뒤 2000년까지 모두 21차례 총선거가 실시됐으나, 임기만료로 실시된 총선거는 1976년 미키 다케오 내각 때의 단 한 차례뿐임, 나머지는 모두 국회해산에 따른 총선거

- 내각불신임결의는 중의원만의 권한이지만 법률 제정시 참의원의 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참의원의 권한도 무시할 수 없음

□ 기타

- 참의원은 법률상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없음, 국회 내에서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견충돌이 발생하면 중의원의 의견이 우선

<참고자료>

衆議院(www.shugiin.go.jp/)

參議院(www.sangiin.go.jp/)